



방정열(안양대)

1. 들어가는 말

평행법은 히브리 시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히브리 시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구성 장치'로 알려져 있다.¹⁾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 측면은 평행법이 히브리 시를 시답게 조형하는 결정적인 장치라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은 평행법 이해가 히브리 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해석의 창(窓)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할 때 평행법의 특성을 온전히 살려 번역하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2nd edi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8), 16. 이 저서는 2012년 그리스심 출판사에서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이희성 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필자에게 익숙한 원서를 참조하여 인용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한글성경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이 무시된 채 번역되어 있다. 대부분의 영어성경 번역본들이 1950년대부터 평행법의 특성을 살려 번역해 왔다는 사실과 한글성경 번역본들 가운데서는 오로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²⁾(1993, 2001)과 『공동번역 성서』(1977, 1999, 2015)만이 평행법을 살려 번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글성경이 평행법을 살린 시행 번역에 있어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³⁾

현재까지 히브리 시(시편)의 한글 번역과 관련하여 연구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첫 번째 방향은 한글의 시편 번역사(翻譯史) 측면에서 진행되었고, 다른 방향은 언어학적·문학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시편의 번역사 측면에서, 최근에 발표된 정중호의 “19세기 이전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2015)는 통상 1900년대로 상정했던 한국의 시편 번역과 해석사를 19세기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한문으로 번역된 시편뿐만 아니라 최초의 한글 시편번역으로 알

2) 민영진,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번역 지침과 특징”, 『기독교사상』(1993), 41-50; idem,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특징과 쟁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1996), 4-26; 이 두 논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번역 지침들과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히브리 시의 시행 번역에 대한 지침 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민영진 박사는 다만 『월간목회』, 91년 1월호에 실은 “성경 번역 이렇게 하였다”라는 글에서 “신문과 시는 그 형태를 구분하여 편집했다”라며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에 대한 번역 지침을 적고 있다(p. 174). 전무용,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기독교사상』(1993), 51-68을 참조하라. 전무용 박사는 이 논문에서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에 적용되었던 번역상의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들을 소개한다. 그는 이 논문 말미에서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이 시행(詩行)에 맞춰 편집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개역의 편집과는 달리, 시는 줄을 바꾸어서 편집하였다. 편집 형식을 2단 조판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문 한 줄이 한 행이 넘을 때에 적절한 자리에서 줄바꾸기를 하였다. 『공동번역 성서』처럼 2단 조판을 할 때에는 줄바꾸기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2단 조판을 하니까 시 한 줄이 조금만 길어도 넘쳐서 두 줄을 차지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말의 운율과 의미단위와 문장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리에서 줄을 바꾸어서 적었다”(p. 64-65).

김정우 박사는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을 평가하면서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이 시편을 시의 형식에 맞춰 번역했다는 점에는 큰 박수를 보내나 “이행(二行) 체계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낸다. 김정우, “『표준새번역』과 그 〈개정본〉의 시편 번역에 대한 평가”, 『신학지남』(1998), 9-27.

3) 가톨릭교회와 사용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서』는 시행 번역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개신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성경을 가운데서 시행 번역을 시도했던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외면으로 시행 번역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려진 「시편촬요」(1898) 이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글의 시편 번역 역사의 궤적과 특징을 제공했다.⁴⁾ 이환진 박사는 “한글 성경 시편 5편의 번역 변화 연구”에서 「시편촬요」(1898)부터 「개역개정판 4판」(2005)까지 시편 5편이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가에 대한 해석의 발자취를 추적했다.⁵⁾ 김정우 박사의 논문 또한 시편 번역사 영역에 유의미한 기여를 했지만,⁶⁾ 이 논문들은 대체로 시편의 한글 번역사 및 번역상의 추이(推移)에 초점을 맞춰 전개된 논문들로 분류할 수 있다.

히브리 시(시편)의 한글 번역과 관련하여 진행된 두 번째 방향은 시편의 한글 번역을 언어학적·문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들에서 확인된다. 이 논문들 중에서 박철우 박사와 김정우 박사의 논문을 살펴볼 수 있다. 박철우 박사는 미셸 다후드(Mitchell Dahood)의 회구법 이론을 적용하여 시편을 해석할 때 발생하는 의미론적 변화에 주목했고, 김정우 박사는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라는 제하의 두 번(1부와 2부)에 걸친 논문에서 히브리 시를 번역할 때 평행법의 여러 특징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찰했다.⁷⁾ 이영미 박사의 “히브리 시의 평행법에 관한 소고” 또한 평행법을 간략하게 개괄한 다음 사무엘상 18장 7절을 평행법의 특성을 접목시킨 해석과 전후문맥(산문)을 고려한 해석 사이의 차이를 제공했다.⁸⁾

이처럼 히브리 시(시편)의 번역과 관련한 논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히브리 시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는

4) 정중호, “19세기 이전의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21 (2015), 65-90.

5) 이환진, “한글 성경 시편 5편의 번역 변화 연구: 「시편촬요」(1898)부터 「개역개정판 4판」(2005)까지”, 『성경원문연구』 38 (2016), 7-47.

6)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 『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

7) 박철우, “한글성경 번역을 위한 회구법 카탈 적용의 필요성”, 『성경원문연구』 40 (2017), 71-94;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1부 이론적 기초”, 『성경원문연구』 19 (2006), 7-28; idem,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 제2부: 실례들-”, 『성경원문연구』 20 (2007), 7-29; idem,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 (2003), 7-40을 참조하라.

8) 이영미, “히브리 시의 평행법에 관한 소고”, 『신학연구』 46 (2004), 93-121.

평행법의 다층적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한글 번역과 연동시켜 연구한 논문은 없다. 김정우 박사의 논문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는 평행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와 선별된 구절들(창 2:23절, 창 3:16절, 창 4:23-24절, 삼상 18:8절, 시 62:11절, 잠 30:15-16절, 잠 30:21-23절, 잠 30:18-20절)에 평행법을 적용해 연구했으나,⁹⁾ 평행법의 언어학적인 측면들(구문론적/형태론적, 음운론적, 의미론적)을 균형 있게 고찰한 다음 한글로 번역하는 지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그는 이 논문보다 5년 뒤(2011년)에 발표 한 다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끝으로, 지난 100년의 「시편」 유산에서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히브리시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시와 산문을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평행법을 아직까지도 우리의 번역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⁰⁾

이와 같은 히브리 시편의 한글 번역 현실을 동인(動因) 삼아 본 논문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적 특징들을 살려서 한글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몇 가지 언어학적 한계들을 살피고, 그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평행법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할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히브리 시를 이해할 때 평행법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논의할 것이다 (평행법 이해의 중요성). 두 번째로 평행법이 여러 영역(구문론적, 의미론적, 음운론적, 형태론적 측면)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가를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평행법의 특성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할 때 두 언어의 차이로 발생하는 한계들을 연구한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런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시의 한글 번역가들이 시행해주었으면 하는 세 가지 제안을 제공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9)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 제2부: 사례들-”, 7-29.

10)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 「시편철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29.

2. 평행법 이해의 중요성

히브리 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때 평행법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할까? 만일 평행법 이해가 히브리 시를 이해할 때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할 때 평행법의 특성을 살려 번역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 시에 대한 한글로의 번역과 관련해서 평행법의 중요성을 어떤 차원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장치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그것에 관해서는 김정우 박사와 이영미 박사의 논문에 이미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본 논고는 '구성 장치'와 '의미 창출 장치' 측면에서 평행법의 중요성을 개략할 것이다.

1) 구성 장치로서의 평행법

평행법의 중요성은 본질적으로 히브리 시를 구성하는 '구성 장치'라는 측면에서 확인된다. 사실 평행법은 시뿐만 아니라 산문(내러티브)에서 발견되지만, 인물, 플롯, 배경, 화자의 시점 등의 요소들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장치들로 작동하는 것이지 평행법이 '구성 장치'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¹¹⁾ 평행법이라는 단단한 뼈대 위에 다양한 시적 언어의 살들을 메꾸어 놓은 것이 히브리 시이다.

히브리 시의 한 구절은 대체로 두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두 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복'과 '상응' 현상을 가리켜 '평행법'이라고 한다.¹²⁾ 다

11) Tremper Longman III, "Biblical Narrative", Leland Ryken and Tremper Longman III(ed.), *A Complet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Grand Rapids: Harper Collins, 1993), 69-79; Jerome T. Walsh, *Old Testament Narrative: A Guide to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12) '상응'은 '반복' 혹은 '대체'로 발현된다. A행과 B행이 상응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A행의 단어, 구, 절 혹은 그 이상이 B행에서 반복되거나 다른 무엇으로 대체된다. 이런 상응은 콜론(colon)과 콜론 사이에서, 행과 행 사이에서, 절과 절 사이에서, 단락과 단락 사이에서, 심지어 시편과 시편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윌프 A. 제이콥슨, 칼 N. 제이콥슨, 『시편으로의 초대』(류호준/방정열 옮김), (서울: 대서, 2015), 19-55를 참조하라.

시 말해서, 평행법이란 행(行)과 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복’(反復)과 ‘상응’(相應)의 언어학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반복과 상응 현상은 “등가”(equivalence)라는 원칙에 따라 작동되며, 그 등가는 ‘선택’과 ‘조합’이라는 두 통로를 통해 발현된다.¹³⁾ 예를 들어서, 단어 ‘학생’은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의 단어들 가운데 하나를 떠올려 ‘선택’하게 하고, 그 단어는 ‘공부하다’, ‘학교에 가다’, ‘시험을 치르다’ 등의 표현들과 함께 ‘조합’을 이루어 문장을 조형하게 된다. 결국 ‘남학생이 학교에 가다’라든지, ‘여학생이 시험을 치르다’ 등의 문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히브리 시에서도 진행된다. 시편에서 예를 들면, 단어 ‘**שָׁמַיִם**’(사마임/하늘)은 ‘**רָקִיעַ**’(라키아/궁창), ‘**בַּיָּמִים**’(마욘/높은 곳), ‘**עַל־הַמַּיִם**’(에레츠/땅), ‘**בְּהַרְרֵי**’(샤하크/구름, 하늘, 궁창) 등의 단어들 가운데 하나를 떠올려 선택하게 하고, 그 단어는 ‘밝다’, ‘선포하다’, ‘찬양하다’, ‘기뻐하다’ 등의 동시들과 함께 조합을 이루어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시편 19편 1절은 이런 구성 과정에 따라 형성된 평행법을 잘 보여 준다:

A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B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¹⁴⁾

‘하늘’과 ‘궁창’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선택되고, ‘선포하다’와 ‘나타내다’의 동시들과 함께 조합을 이루어 평행법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반복’과 ‘상응’, ‘등가’와 ‘대조’ 등, 평행법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역동적인 작용을 통해서 히브리 시는 구성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차원에서 평행법이 히브리 시를 구성하는 ‘구성 장치’라고 제기했던 아텔 벌린의 주장은 정당하다.¹⁵⁾ 히브리 시인

13)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7.

14) 인용된 성경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개역개정역』에서 인용할 것이다.

15)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17; Roman Jakobson, “Poetry of Grammar and Grammar of Poetry” in *Lingua* 21 (1966), 597–609.

들은 시를 작성할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시를 작성했으며, 그것은 히브리 시에 작동하는 평행법 분석을 통해 재확인된다.

2) 의미 창출 장치로서의 평행법

평행법은 ‘구성 장치’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의미 창출 장치’로서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드러난다. 이 측면은 로버트 로우스(Robert Lowth)를 비롯해 제임스 쿠겔(James Kugel), 로버트 알터(Robert Alter), 스티븐 겔러(Stephen Geller), 데니스 파디(Dennis Pardee), 아델 벌린(Adele Berlin)¹⁶⁾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전개되고 발전되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로버트 로우스가 분석했던 평행법 종류(동의적 평행법, 반의적 평행법, 종합적 평행법)가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행법의 다양한 특징들을 더 깊이 연구해나가는 길목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더욱 깊이 연구하게 되는 촉발제가 되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평행법 현상의 범위와 관계가 있다. 로버트 로우스의 평행법 이해는 주로 의미론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두 행(A행과 B행) 사이에 발생하는 ‘반복’과 ‘상응’ 현상을 의미론 차원에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평행법은 단지 의미론 측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론/형태론, 음운론, 의미론 등 언어의 모든 측면에서 작동하는데, 특별히 구문론과 의미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작동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¹⁷⁾ 특별히 평행법의 의미론 측면에서 제

16) Robert Lowth,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 Scriptures* (1787) (Anglistica and American 43; Hildesheim; G. Olms, 1969); James L.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1), 1-58;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1985), 3-26; Stephen Geller, *A Parallelism in Early Biblical Poetry* (Missoula: Scholars, 1979); Dennis Pardee, "Structure and Meaning in Hebrew Poetry: The Example of Psalm 23", Edward M. Cook(ed.), in *Sopher Mahir: Northwest Semitic Studies Presented to Stanislav Segert*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239-80;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2nd edi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8).

17)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17.

임스 쿠겔(Kugel)은 A행과 B행이 평행하는 구절에서 B행은 대부분 A행이 말하는 것 이상(확대, 반복, 정의, 재진술, 대조, 강조 등)을 말한다고 주장했고,¹⁸⁾ 로버트 알터(Alter) 또한 B행이 A행의 내용을 강화하고 구체화시킨다고 주장했다.¹⁹⁾ 쿠겔과 알터의 주장은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동일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델 벌린(Berlin) 또한 B행의 역할에 관해서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²⁰⁾ 모든 행과 행 사이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두 행 사이에는 의미론적 변화(semantic nuance)가 창출된다.

개략하자면 히브리 시의 평행법은 시 자체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구성 장치’ 일뿐만 아니라 A행과 B행의 역동적인 언어학적 작용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의미 창출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 행(A행과 B행)이 단지 나란히 평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복’과 ‘상응’ 관계를 통해 의미론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히브리 시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두 행 사이의 관계를 통해 창출된 의미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해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 시를 이해할 때 평행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조건이다.

3. 히브리 시 평행법의 작동 영역

히브리 시를 이해하고자 할 때 평행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조건일 만큼 중요하다. 이는 사실과 더불어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할 때 반드시 고찰해야 할 주제는 평행법의 작동 범위에 대한 이해이다. 로버트 로우스가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작업은 분명 박수 받을 일이었지만, 평행법을 의미론적인 측면에 국한시켜 동의적 평행법, 반의적 평행법, 종합적 평행법으로 단순화

18) James L.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51-52.

19) 위 글. 19. 알터가 평행법을 설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heightening’이라는 표현은 ‘고조’, ‘고양’, ‘강화’, ‘증대’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내포된 의미는 쿠겔의 평행법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81.

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평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 시의 평행법은 의미론적인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언어의 모든 영역, 즉 구문론/형태론, 음운론, 의미론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²¹⁾ 본 논문의 목적 가운데 일부는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한글로 옮길 때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아래에서는 평행법이 작용하고 있는 세 영역을 필요한 만큼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것이다.

1) 구문론적 평행법

문법 영역(구문론/형태론)에서 발생하는 평행법은 말 그대로 구문론적(syntactical) 요소 혹은 형태론적(morphological) 요소들이 두 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복’과 ‘상응’ 현상을 가리킨다. 특별히 히브리 시의 한글번역과 관련하여, 뒤에서 구문론적 평행법을 자세히 논하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문론적인 평행법은 두 행 사이에서 명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등이 상응(‘구문론적 등가’ [syntactical equivalence])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시편 103편 10절과 시편 25편 4절을 생각해보자.

[시 103:10]

לָנוּ	עָשָׂה	כַּחֲטָאֵינוּ	לֹא A
전치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부정 불변화사
(전치사+인칭접미사)	(전치사+명사+소유격 접미사)		
c	b	a	
:עֲלֵינוּ	גָּמַל	כַּעֲוֹנוֹתֵינוּ	וְלֹא B
전치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부정 불변화사
(전치사+인칭접미사)	(전치사+명사+소유격 접미사)		
c'	b'	a'	

21) 윗글, 18-30.

시편 103편 10절의 A행과 B행 사이에는 구문론적 요소들—‘전치사구(aa’)+동사(bb’)+전치사구(cc’)—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a(כִּהְיִיתָ)와 a’(כִּי־יִנְחָנוּ)이 상응하고, b(עָשָׂה)와 b’(נָמַל)이 상응한다. 그리고 c(לָנוּ)은 c’(עָלֵינוּ)과 상응한다. 따라서 A행과 B행 사이에는 일종의 구문론적 패턴—abc/a’b’c’—이 확인된다.

[시 25:4]

הוֹרִיעֵנִי	יְהוָה	רָרָךְ	A
동사구	호격	명사구	
c	b	a	
לְמַרְנִי:	אֲרַחֲוֶיךָ	B	
동사구	명사구		
c’	a’		

시편 25편 4절의 A행과 B행 사이에도 구문론적 요소들—‘명사구(aa’)+동사구(cc’)—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a(רָרָךְ)와 a’(אֲרַחֲוֶיךָ)이 상응하고, c(הוֹרִיעֵנִי)와 c’(לְמַרְנִי)이 상응한다. A행의 명사구와 동사구 사이에 호격(hw"hy>)이 놓여 있기는 하지만, A행과 B행 사이에는 구문론적 등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두 행은 abc/a’c’의 구문론적 패턴을 보여준다.

위에서 보듯이, 두 행 사이에서 구문론적인 ‘반복’과 ‘상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히브리 시의 모든 평행 구절에서 구문론적 ‘반복’과 ‘상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행법이 구문론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²²⁾

22) 평행법을 구문론적인 차원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은 테렌스 콜린스(Terence Collins)다. 그는 1978년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의미론적·음운론적 차원에서만 다루지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구문론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평행법에 대한 구문론적인 분석을

2) 음운론적 평행법

평행법의 음운론 차원은 히브리 시의 운율 존재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학자들부터 긍정적인 시각을 지닌 학자들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²³⁾ 김정우 박사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면서도, 운율이 가미된 번역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지는 열린 자세를 취하지만,²⁴⁾ 아델 벌린 (Berlin)은 운율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평행법이 음운론 영역에서 분명히 발견된다고 주장한다.²⁵⁾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히브리 시의 음운론적 측면들을 모두 소개하기보다는 두 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음운론적 ‘상응’과 ‘반복’, 특별히 ‘소리 짝’(sound pair)에 초점을 맞춰 소개한다.²⁶⁾ 여기서 그녀는 ‘소리 짝’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두 행 사이에서 적어도 두 개의 자음이 짝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는 그 짝이 두 행에서 하나의 단어나 인접한 단어들 내에 있어야 한다. 셋째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소(音素: phoneme)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즉, 카프(כ)와 경강점이 붙은 카프(כּ), 비음 맴(ם)과 눈(נ), 마찰음 씀(מ)과 신(ש) 등을 동일한 음소로 간주한다.²⁷⁾ 이 세 가지 기준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지만, 논자 또한 히브리 시의 음

전개하면서도 모든 구절에 구문론적인 평행법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Terence Collins, *Line-Forms in Hebrew Poetry: A Grammatical Approach to the Stylistic Study of the Hebrew Prophets* (Rome: Biblical Institute, 1978), 20–25.

- 23) 히브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운론적 장치들에 관해서는 Wilfred G.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222–250; Susan E. Gillingham, *The Poems and Psalms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44–68; Jan P. Fokkelman, *Reading Biblical Poetry: An Introductory Guid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1–27을 참조하라.
- 24) 김정우,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9–10. 김정우 박사는 히브리 시의 세 가지 운율 계산법을 소개하면서 히브리 시에는 운율이 없다고 단언한다. 김정우, 「히브리 시학」(서울: 기훈, 2013)의 12페이지 각주 14를 참조하라.
- 25)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103.
- 26) 윌클, 104. 그녀는 ‘소리 짝’을 “평행 단어 및 행(行)들에 있는 동일 자음의 반복”으로 정의한다. 벌린은 음운론적 평행법을 전개하면서 두 가지 이유로 자음에 초점을 맞춰 전개한다. 첫째로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히브리어는 종종 자음 언어(consonantal language)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27) 윌클, 105.

운론적 측면을 지지한다. 논자가 히브리 시의 음운론 영역에서 이 지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뒤에서 언급하게 될 평행법에 등장하는 음운론적 평행법과 한글로의 번역 사이의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이다.

어쨌든 히브리 시의 두 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음운론적 평행법을 살피기 위해서 시편 32편 1절과 시편 122편 7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시 32:1]	[시 122:7]
אֲשֶׁר־י נְשׂוּי־פֶשַׁע A <i>'ašre n'sûy-peša'</i>	יְהִי־שְׁלוֹם בְּחֵילֶךָ A <i>y'hi-šālôm b'helek</i>
כִּסּוּי הַטָּאָה B <i>ksûy h'tā'ah</i>	שְׁלוֹה בְּאַרְמֹנֹתַיִךְ B <i>šalwá b'amnôtāyik</i>

위에서 보듯이 시편 32편 1절의 A행과 B행에는 소리 '신'(s)과 '요드'(y)가 짝을 이루어 상응하고 있고, 시편 122편 7절의 A행과 B행에는 소리 'šin'(š)과 '라메트'(l)가 짝을 이루어 평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운론적 평행법은 히브리 시의 두 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음운론적 상응들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²⁸⁾

3) 의미론적 평행법

히브리 시의 평행법은 위에서 개략한 바와 같이 구문론적·음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측면에서도 작동한다. 의미론적 평행법은 말 그대로 두 행의 단어나 시행(詩行) 레벨에서 의미론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평행법은 별도로 다뤄야 할 만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²⁹⁾ 뒤에

28) 윌클, 105-126.

29) Tremper Longman III, *How to Read the Psalms*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88), 95-110; Wilfred G.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 114-159; 김진규,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266-277; 김정우,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 제2부: 실례들-", 『성경원문연구』 20 (2007), 7-29.

서 다루게 될 한글 번역과의 상관관계 차원을 고려하여 단어와 구절 차원에서 하나씩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시 25:4]

יְהוָה מִי־יִגְוֹר בְּאַהֲלָיָהּ A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으며

מִי־יִשְׁכֵּן בְּהַר קְדֻשָּׁהּ: B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나이까?

시편 25편 4절의 두 행(A행과 B행)을 살펴보면, A행의 동사 גִּוֹר(구르/머무르다)와 B행의 동사 שָׁכַן(사칸/거하다)이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상응한다. 두 단어(‘구르’와 ‘사칸’)는 동일한 의미장(意味場)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의어(類義語)로서 간주되는 단어들이다.³⁰⁾ A행의 אֹהֶל(오헬/장막)과 B행의 הַר(하르/산)는 유의어는 아니지만, ‘하르’에 덧붙여진 표현 ‘주의 거룩한’(קְדֻשָּׁהּ)에 의해서 ‘장막’과 ‘주의 성산’은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리킴으로써 의미론 차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시편 25편 4절의 두 행(A행과 B행)은 의미론적인 평행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 25:4]

יְהוָה הוֹדִיעֵנִי דְרָכָיו A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אֲרַחֲמֶיךָ לְמַדְנִי: B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25편 4절의 두 행(A행과 B행)에서도 동일한 의미론적 평행법이 작동

30) “גִּוֹר”, DCH 2:336.

한다. A행의 **קָרַק**(떼레크/길[도])와 B행의 **קָרַח**(오라흐/길)는 유의어이다. ‘떼레크’는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712번 등장하는 반면, ‘오라흐’는 지혜문서에 집중적으로 59번 등장한다. 전자는 문자적인 ‘길’과 은유적인 ‘삶’의 길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반면 후자는 주로 삶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된다.³¹⁾ **אָדָּא**(아다/알다)의 히필형 ‘알게 하다’와 **לָמַד**(라마다/가르치다)는 의미론적으로 동일하다.

이처럼 히브리 시에서 의미론적 평행법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별런이 말한 것처럼 다른 평행법에 비해 독자들의 주목을 더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³²⁾ 이 지점에서 다시 언급해야 할 것은 히브리 시에서 평행법은 시의 ‘구성 장치’이자 ‘의미 창출 장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행법은 단순히 시를 조형하는 구성 장치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장치라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언어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수용언어로 번역할 때, 그것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진부한 질문이 제기된다. 아래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히브리 시의 평행법의 특징과 기능을 온전히 살려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부터는 평행법의 한글 번역시 뒤따르는 한계들을 고찰해보도록 할 것이다.

4. 히브리 시의 한글 번역과 그 한계

위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히브리 시의 평행법은 구문론(형태론을 포함), 음운론, 의미론 등 언어의 제 영역에서 작동한다. 문제는 히브리 시를 이해할 때 중요한 장치로 간주되는 평행법 현상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언어의 언어학적 충돌로 인해 부득불 여러 한계점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런 번

31) “קָרַח”, *DCH* 1:376; Eugene H. Merrill, “קָרַח”, *NIDOTTE* 1:504–505.

32)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64.

역상의 한계점들은 결국 평행법으로 조형된 히브리 시를 독자들이 온전히 음미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한계점들에 대한 질문은 진부한 질문이지만, 어느 지점에서 어떤 차이로 한계점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전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아래에서는 평행법과 관련된 번역상의 한계점들을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1) 구문론적 평행법에 대한 번역의 한계

히브리어는 단어의 굴절(어형과 어미의 변화)을 통해 문장 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굴절어(屈折語)에 해당된다. 히브리어의 이런 언어적 특성은 문장 내 단어의 어순에 따라 그 역할이 결정되는 분석적 언어(分析的 言語)와 다르며(예, 영어), 이 굴절 특성이 바로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장애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는 동사 뒤에 목적어 접미사가 붙어 있을 수 있고(אֲנִי מָתְּ [나를 죽이다]), 동사 앞 혹은 뒤에 주어(אֲנִי)가 붙어 있을 수 있으며(אֲנִי מָתְּ [내가 말하다-완료형], אֲנִי מָתְּ [내가 말하다-완료형]), 심지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하나의 형태로 표기될 수도 있다(אֲנִי מָתְּ [그가 나를 죽이다]). 그러나 한글은 히브리어와 다른 구문론적 특성을 지닌다. 한글은 단어나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조사가 붙어 문장 내 기능(문장성분 역할)을 하게 되는 교착어(膠着語)이기 때문에 단어의 위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한 단어로 표현된 אֲנִי מָתְּ(아하르그니)를 한글로 번역하면 “그가 나를 죽이다”와 같이 세 개의 단어를 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히브리 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히브리 시의 구문론적인 평행법은 의미론적인 측면과 함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평행법이지만 문체는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히브리 구문과 한글 구문의 분명한 차이로 인해 구문론 차원에서 구성되고 조직된 평행법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한 구절의 구문론적 평행법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해체된다고 의미마저 해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문론적 평행법 자체가 깨지는 것은 확연(確然)하다 할 수 있다.

[시 103:10]

לָנוּ	עָשָׂה	כְּחַטָּאֵינוּ	לֹא	A
전치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부정 불변화사	
우리에게	처벌하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아니	

עָלֵינוּ:	גָּמַל	כְּעֹנֹתֵינוּ	וְלֹא	B
전치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부정 불변화사	
우리에게	갚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아니	

위에서 구문론적 평행법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예시했던 구절에서 보았듯이 A행과 B행이 구문론적으로 평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문론적 평행법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면 한글의 어순은 훼손되고 만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구문 순서에 따라 한글로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시 103:10]

아니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다	우리에게	A
아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갚다	우리에게	B

만일 한글 어순을 따라 자연스럽게 바꾸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처벌하지 아니하셨고//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다”가 되지만, 히브리어 본래의 구문론적 평행법은 훼손되고 만다.

2) 음운론적 평행법에 대한 번역의 한계

구문론적 평행법에 대한 한글 번역에 한계가 있듯이 음운론적 평행법의 한글 번역 또한 한계가 있다. 악센트나 음절은 히브리어 고유의 독특한 악센트와 음절인데다가 위에서 제시했던 음운론 평행법의 실례에서처럼 두 행 사이에

www.kci.go.kr

서 발생한 자음의 짝이 평행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모두 사라지고 만다.

[시 32:1]		[시 122:7]
אֲשֶׁרִי נְשׂוּי־פֶשַׁע A	A	יְהִי־שְׁלוֹם בְּחַיִּלךָ A
'aşre n'sûy-peša'		y'hi-šālôm b'helek
כִּסּוּי הַטָּאָה B	B	שְׁלוֹהַּ בְּאַרְמְנוֹתַיךָ B
k'sûy h'tā'ah		šalwā b'armnôtāyik

시편 32편 1절의 A행과 B행에는 '신'(s)과 '요드'(y)가 짝을 이루어 평행을 이루고 있고, 시편 122편 7절의 A행과 B행에는 '쉬'(š)과 '라메드'(l)가 짝을 이루어 평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을 한글로 번역할 때, 그러한 음운론적 평행법을 살릴 수 있을까? 논자는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 먼저 위 두 구절을 한글로 번역해보고, 번역에도 음운론적 평행법을 살릴 수 있는지, 그가능성을 실제로 타진해보자.

[시 32:1]		[시 122:7]
אֲשֶׁרִי נְשׂוּי־פֶשַׁע A	A	יְהִי־שְׁלוֹם בְּחַיִּלךָ A
하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성 안에 평안이 있을 지이다
כִּסּוּי הַטָּאָה B	B	שְׁלוֹהַּ בְּאַרְמְנוֹתַיךָ B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지이다

시편 32편 1절의 A행에 있는 נְשׂוּי(나사/나르다, 사하다)의 칼 수동 분사 남성 단수 연계형(נְשׂוּי)과 B행에 있는 כִּסּוּי(카사/덮다, 가리다)의 칼 수동 분사 남성 단수 연계형(כִּסּוּי)에 있는 '신'(s)과 '요드'(y)가 짝을 이루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반복된 자음의 음가(音價)—[s]과 [y]—를 한글 번역에 그대로 치환시

켜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A행의 ‘네수이’(נְשׂוּי)와 B행의 ‘케수이’(כְּסוּי)에 있는 음가 [시]과 [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번역어를 찾아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번역상의 어려움은 두운 현상(alliteration)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행으로 구성된 시편 93편 3절에서 첫 두 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두운(頭韻)을 한글로 옮길 때 그 음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시 93:3]

נְשׂאוּ נְהַרְוֹת יְהוָה A
nas'û n'hārôt yhw

נְשׂאוּ נְהַרְוֹת קוֹלָם B
nas'û n'hārôt qôlām

יִשְׂאוּ נְהַרְוֹת דְּכֹכְבִים: C
yš'û n'hārôt dokyām

위에서 보듯이 세 행(A행, B행, C행)은 구문론과 의미론 측면에서 선명한 평행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음운론 차원에서도 여러 음들이 평행해서 반복된다([n], [a], [s], [e], [h], [a], [r], [m]). 특별히 A행과 B행은 모두 자음 'נ' [n]으로 시작하면서 음가로 [니]을 갖는 두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할 때 그 음가를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없다.

נְשׂאוּ נְהַרְוֹת יְהוָה A
 여호와와여! 큰물이 소리를 높였고

נְשׂאוּ נְהַרְוֹת קוֹלָם B
 큰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히브리어와 한글의 구문론 차이로 인해 동사인 נִשְׁמָע (나세우/소리를 높이다)가 문미로 밀려나게 되면서 A행과 B행의 문두에서 작용했던 두음 현상은 자연스럽게 소실되고 만다. 한글 어법을 무시하고 “[A행] 소리를 높였고, 큰물이//[B행] 소리를 높였고, 큰물이”로 번역하면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동의적일 수 있으나 ‘소리’의 초성 음가인 [시]을 동사 ‘나세우’의 첫 자음의 음가인 ‘눈’[n]으로 치환하여 번역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번역상의 요원함은 히브리어와 한글의 구문론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언어의 음절 체계의 차이로 인해서도 비롯된다. 히브리어의 음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음과 하나의 모음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한글의 음절 구성은 네 가지나 된다. ‘모음’(V) 단독(이, 어, 애, 왜), ‘자음+모음’(CV) (사, 구, 대, 표), ‘모음+자음’(VC) (앞, 열, 옷, 왕), ‘자음+모음+자음’(CVC) (방, 각, 색, 집) 등이 있다. 따라서 히브리어의 한 음절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두 음절이 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누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מִי(미)는 한 음절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번역 ‘누가’ 혹은 ‘누구’는 모두 두 음절이 된다. 따라서 히브리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한글로 곧바로 치환하여 번역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의미론적 평행법에 대한 번역의 한계

평행법이 구문론, 형태론, 음운론, 의미론 영역에서 구분되지만, 평행으로 구성된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할 때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은 의미론적 평행법이다. 두 행(A행과 B행)으로 구성된 구절에서 유사, 대조, 강화, 확대, 구체성 등의 의미론적 변화를 한글 번역에서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위에서 의미론적 평행법을 위해 예시한 시편 25편 4절을 다시 살펴보자.

[시 25:4]

יְהוָה מִי־יָגִיד בְּאָזְנוֹךָ A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으며

www.kci.go.kr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A행과 B행은 의미상 동일하다. 두 행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과 ‘거룩한 산’에 누가 머무를 수 있는냐는 자격 조건을 묻는다. A행과 B행의 히브리 구문은 ‘의문대명사+동사+전치사구’로 평행을 이루고 있지만,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구문론적 평행법은 훼손된다. 즉 한글로 번역되면서, ‘의문대명사+전치사구+동사’(예,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가?) 혹은 ‘전치사구+의문대명사+동사’(예,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할 수 있는가?)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A행과 B행의 구문론적 평행법의 해체와 상관 없이 두 행은 의미론적으로 동일하다.

5. 히브리 시의 한글 번역에 대한 제언

논자는 위에서 평행법이 히브리 시의 ‘구성 장치’이자 ‘의미 창출 장치’라는 사실과 히브리 시 이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개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치의 특성을 온전히 살려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은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지점에서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하는 학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학적 한계들을 인정한 채 평행법을 무시하고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평행법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번역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논자는 위에서 히브리어와 한글의 구문론적·음운론적 차이로 인해 히브리 시의 평행법이 소실되고 만다는 것을 예시(例示)하였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히브리어의 기본 문형이 ‘동사+주어+목적어’인 반면, 한글의 기본 문형이 ‘주어+목적어+동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히브리 시의 구문론적 평행법의 한글 번역은 요원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히브리 시의 음운론적 평행법도 두 언어의 음

운 체계의 차이로 인해 한글로 번역되면서 해체되고 만다. 그러나 히브리 시의 의미론적 평행법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온전히 살려 번역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논자는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할 때 평행법을 최대한 살리되 다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는 내용 측면에서 의미론적 평행법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번역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형식 측면에서 시행(詩行)을 활용해 번역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은 시대적 부응 차원에서 제시하는 제안이다. 즉 시행 번역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성경 부피의 증가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행으로 번역된 성경을 디지털화해 보급해보자는 것이다.

1) 의미론적 차원의 번역

히브리 시의 평행법 번역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두 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미론적 평행법’을 최대한 살려 번역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물론 로버트 로우스의 세 가지 평행법(동의적 평행법, 반의적 평행법, 종합적 평행법) 뿐만 아니라 B행의 의미 강조·확장을 주장하는 로버트 알터와 제임스 쿨의 평행법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런 의미론적 평행법은 한글로 번역할 때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그러나 두 행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미론적 관계는 매우 절묘하며 다양하다. 단순한 동의적·반의적 의미 관계를 넘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때도 있고, 명령과 이유의 관계일 때도 있다. 시편 25편 16절과 시편 66편 5절의 예를 들어 확인해 보자. 이 두 구절을 제시하는 이유는 두 행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가 한글번역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시편 25편 16절을 보자.

[시 25:16]

	פְּנֵה אֵלַי יְהוָה	A
명령	명령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이유	כִּי־חַיִּיר וְעַנִּי אָנִי	B
	주어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평행하고 있는 A행과 B행의 의미론적 관계는 ‘명령과 이유’의 관계이다. A행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자신에게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고, B행은 그 이유로 자신이 외롭고 괴롭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A행과 B행을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를 따라 번역해보면, “내게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외롭고 괴롭기 때문입니다.”[사역]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한글 어법에 따라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로 번역했다. 『개역개정역』은 이유 접속사 ‘כִּי’(키)를 살려서 앞말이 뒷말의 이유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니’를 붙여 번역했다. 하지만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역』은 그 뉘앙스를 살리지 않고 번역했다.³³⁾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역』은 평행하고 있는 A행 B행 사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반면, 『개역개정역』은 이유 접속사 ‘כִּי’(키)를 살려서 두 행의 의미론적 관계를 제대로 번역했다고 할 수 있다.

	『표준새번역』	『공동번역개정역』
A	주님, 나를 돌아다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B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이 몸입니다.

그러나 두 행의 관계가 접속사 없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시편 66편 5절이 그 실례가 될 수 있다. 5절에서 평행하고 있는 A행과 B행의 의미론적 관계는 시편 25편 16절처럼 ‘명령과 이유’의 관계이다. A행에서 시인은 “온 땅”에

33) 『개역개정역』과 『표준새번역』은 히브리어 본문에 있지 않은 “주여” 혹은 “주님”을 첨가해 번역했다.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있고,³⁴⁾ B행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것들이 놀랍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나 B행에 이유 접속사 ‘כִּי’(키)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 66:5]

명령	לָבוֹ וְרָאוּ מַפְעֵלוֹת אֱלֹהִים	A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유	וְנִרְאָה עֲלֵיכֶם עֲלֵבֹנֵי אָדָם׃	B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편 5절의 B행이 A행(‘와서’와 ‘보라’)의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엄위하시기 때문이며, 6-7절은 5절의 B행이 언급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홍해 사건이었음을 노래한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6절).

	『표준새번역』	『공동번역개정역』
A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오라, 와서 보아라. 하느님 하신 일들을,
B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인간에게는 엄청나고 두려운 일들을.

이 구절에 대한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역』의 번역 또한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행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명령-이유)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에서 전개한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볼 수 있을 것이다.

34) ‘와서’와 ‘보라’의 초청을 받고 있는 대상이 5절에서는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1-4절에서 초청되었던 “은 땅”이 5절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66:5]

A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들을 보라!

B 사람에게 행하신 (그의) 행위가 놀랍기 때문이로다.

2) 시행 구조를 따른 번역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할 때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시행 구조로의 번역이다. 그 이유는 행과 행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응’과 ‘반복’ 관계를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 시가 평행법을 통해 구성되고, 평행 라인을 통해 의미가 창출된다면, 한글 번역에서 이 관계를 최대한 가시적으로 살려서 번역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한글의 시편 번역은 이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듯 보인다. 영어번역 성경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살려 번역한 기반세기가 훨씬 넘는다. 세 개의 영어 번역 성경을 살펴보자. 1965년 번역 위원회가 결성된 후 NIV(New International Version)는 1973년에 신약성경이, 1978년에는 성경 전체가 완역되었다. 그때 번역된 시편은 평행법을 고려해 시행 구조로 번역되었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다.³⁵⁾ NAB(New American Bible)는 로마 가톨릭 학자들에 의해서 신약은 1941년에 완역되어 출판되었고, 구약성경은 1948년부터 1969년에 걸쳐서 번역이 완성되었다. 이 번역 성경은 문자적인 번역을 따랐지만, 평행 구조로 번역되었다. 구약성경 중 시편 번역은 1955년에 완성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의 일이다.³⁶⁾ RSV(The Revised Standard Version)는 1928년에 계획되었으나 1937년이 되어서야 재원이 확보되어 번역 작업이 착수되었다. 신약성경은 1946년 완역되었고, 구약성경을 포함하여 *The Holy Bible Revised Standard Version*으로 완역된 것은 1952년이었다.

35) Paul D. Wegner, *The Journey from Text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2nd Edi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379–381.

36) 윗글, 352–353.

이 역본의 시편 번역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살려 시행 구조를 취하여 번역했다.³⁷⁾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의 일이다. 영역성경에 비해 반세기가 넘도록 히브리 시의 한글 번역(개신교 성경)은 여전히 시행 구조를 보편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각주 2)에서 언급했듯,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이 히브리 시의 ‘이행’(二行) 체계를 종종 지키지 않고 있다는 김정우 박사의 지적에 논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이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살려 시행 구조로 번역했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시편 3장 1절에 대한 『개역개정역』과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번역을 비교해보면 히브리 시행 번역이 독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분명해진다.

시 3:1	개역개정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표준새번역	A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B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시행 구조 번역은 『개역개정역』의 산문체 번역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시각적인 측면에서 독자들이 두 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만일 대부분의 영역본들이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행에 ‘들여쓰기’를 적용한다면,³⁸⁾ 훨씬 더 선명하게 시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7) 윗글, 320-321.

38) 존 H 스텡, 『구약신학: 본문과 해석』 (류호준 편역), (서울: 솔로몬, 2000), 517. 존 스텡은 히브리 시를 번역할 때 사용해야 할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를 제시한다. ① 최소한 간결하게 번역하라. ② 가능한 일 반적인 숙어와 문체를 사용하라. ③ 원문의 이미지를 최대한 그대로 살려 번역하라. ④ 운율의 리듬을 최대한 살려라. ⑤ 운(韻)을 살려라. ⑥ 각 콜론의 범위와 상호 연계성을 반영하라. 그리고 ⑦ 두 번째 행(혹은 네 번째 행)에 들여쓰기를 사용하라.

- A O LORD, how many are my foes!
- B How many rise up against me!
- A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 B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좀 더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거친다면(예를 들어, 시의 간결성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도”를 “이리도”로 수정해볼 수 있다), 더욱 훌륭한 시행 번역이 소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성경의 다양한 독자 계층(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등)을 대상으로 한글번역 성경을 전략적으로 제작한다 하더라도 성경번역 지침 가운데 하나로서 히브리 시의 시행 구조 번역은 언제나 필수 사항이 되어야 한다.

3) 디지털 버전으로의 전환 및 제공

세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행 번역을 디지털화해서 한국교회에 보급하는 것이다. 시행 번역이 한국교회 성도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유는 성경 부피의 증가도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시행 번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⁹⁾ 오랫동안 산문번역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시행 번역이 낯선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시행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학생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 중요성을 널리 지속적으로 알려 확대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히브리 시를 시행으로 번역한 이후 2단 조판 혹은 전단 조판으로 배열한 다음 ‘온라인 버전’ 혹은 ‘디지털 버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미 2003년에 아이패드 용 「연구성경」을 출시했고, 2012년

39) 1977년 발행된 「공동번역 성서」는 시행(詩行)에 따라 배열되고 전단 조판으로 제작되었는데, 구약성경의 전체 쪽수가 외경을 포함해 1597쪽에 이른다. 20년 뒤인 1999년 출판된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도 시행에 따라 번역되었고, 2단 조판으로 제작되었는데, 구약의 전체 쪽수는 1474쪽이다. 전단 조판과 2단 조판 사이에 약 100쪽 정도의 차이가 난다.

3월과 5월에 각각 「안드로이드폰용 모바일성경 앱」과 「아이폰용 모바일성경 앱」을 출시했다.⁴⁰⁾ 2013년에는 「대한성서공회 USB 성경」을 보급하기도 했다. 이런 디지털 형식의 성경들은 독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긍정적으로 부응하는 측면도 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어린 세대는 앞으로 종이로 제작된 성경보다 디지털화된 성경 앱을 더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버전의 성경들도 산문 번역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번역을 디지털화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부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시로 되어 있는 성경을 시로 읽게 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는 말

논자는 위에서 히브리 시를 이해하고자 할 때 평행법 이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 중요성은 평행법이 히브리 시의 '구성 장치'와 '의미 창출 장치'라는 차원에서 입증된다. 히브리 시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를 작성할 때 평행법을 활용했고, 그 장치를 활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평행법의 중요성은 한글성경에서도 그대로 살려 번역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소위 구문론적 평행법과 음운론적 평행법은 히브리어와 한글의 언어학적 차이로 인해 번역 과정에서 소실되고 만다. 다만 의미론적 평행법은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평행법이다.

따라서 논자는 시편을 비롯하여 히브리 시를 한글로 번역할 때 의미론적 평행법이라도 최대한 살려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미론적 평행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본 논고에서는 특별히 이유 접속사의 유무를 떠나 B행이 A행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의미론적 평행을 포함하

40)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55542>.

여 히브리 시의 한글 번역은 시행(詩行)의 형식을 취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히브리 시의 평행법의 특성들을 조금이나마 시각화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 시행에 따라 번역했을 때 구약성경 부피와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조판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행 번역을 디지털화해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성경의 히브리 시를 시답게 번역하고자 하는 애정이 더욱 앞서기를 고대해 본다.

7. 참고문헌

- 김정우, “〈표준새번역〉과 그 <개정본>의 시편 번역에 대한 평가”, 『신학지남』 (1998), 9-27.
- _____,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제1부 이론적 기초”, 『성경원문연구』 19 (2006), 7-28.
- _____,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의 문제 - 제2부: 실례들”, 『성경원문연구』 20 (2007), 7-29.
- _____,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 (2003), 7-40.
- _____,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
- _____, 『히브리 시학』 (서울: 기혼, 2013).
- 김진규,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 A. 제이콥슨, 로프. N. 제이콥슨, 로프. 『시편으로의 초대』 (류호준/방정열 옮김), (서울: 대서, 2015).
- 민영진,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번역 지침과 특징”, 『기독교사상』 (1993), 41-50.

- _____,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특징과 쟁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1996), 4-26.
- _____, “성경 번역 이렇게 하였다”, 『월간목회』 91년 1월호.
- 박철우, “한글성경 번역을 위한 희구법 카탈 적용의 필요성”, 『성경원문연구』 40 (2017), 71-94.
- 이영미, “히브리 시의 평행법에 관한 소고”, 『신학연구』 46 (2004), 93-121.
- 전무용,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기독교사상』 (1993), 51-68.
- 정중호, “19세기 이전의 시편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21 (2015), 65-90.
- 이환진, “한글 성경 시편 5편의 번역 변화 연구: 「시편촬요」(1898)부터 「개역개정판 4판」(2005)까지”, 『성경원문연구』 38 (2016), 7-47.
- 스텍, 존 H. 『구약신학: 본문과 해석』 (류호준 편역), (서울: 솔로몬, 2000).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1985).
- Berlin, Adele.,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2nd edi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8).
- Collins, Terence., *Line-Forms in Hebrew Poetry: A Grammatical Approach to the Stylistic Study of the Hebrew Prophets* (Rome: Biblical Institute, 1978),
- Fokkelman, Jan P., *Reading Biblical Poetry: An Introductory Guid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Geller, Stephen., *A Parallelism in Early Biblical Poetry* (Missoula: Scholars, 1979).
- Gillingham, Susan E., *The Poems and Psalms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Longman III, Tremper., “Biblical Narrative”, Leland Ryken and Tremper Longman III(ed.), *A Complet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Grand

- Rapids: Harper Collins, 1993).
- Longman III, Tremper., *How to Read the Psalms*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88).
- Lowth, Robert.,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 of the Hebrew Scriptures* (1787) (Anglistica and American 43; Hildesheim; G. Olms, 1969).
- Jakobson, Roman., “Poetry of Grammar and Grammar of Poetry”, *Lingua* 21 (1966), 597-609.
- Kugel, James 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1981).
- Pardee, Dennis., “Structure and Meaning in Hebrew Poetry: The Example of Psalm 23”, Edward M. Cook (ed.), *Sopher Mahir: Northwest Semitic Studies Presented to Stanislav Segert*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239-80.
- Walsh, Jerome T., *Old Testament Narrative: A Guide to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 Watson, Wilfred G. 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Wegner, Paul D., *The Journey from Text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2nd Edi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55542>.

검색어

히브리 시(詩)

평행대구법

의미론

시행(詩行)

디지털화 보급

Parallelism of Hebrew Poetry and Korean Translation: Limitations and Probability

Jeung-Yeoul Bang

Lecturer at Anyang University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Ph. 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limitations occurr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e parallelism of Hebrew poetry into Korean and to clarify the probability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parallelism of Hebrew poetry can be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studying the parallelism from syntactic, phonetic, and semantic aspects in accordance with Adele Berlin's approach to the poetic device. Based on the analysis, I argue that the Hebrew parallelism plays a role as both 'constructive device' and 'meaning-creating device,' which demonstrates justifiability to appropriately translate features of parallelism as they are translated into Korean. Due to the linguistic disparity between Hebrew as an inflected language and Korean as an agglutinative language, one is forced to focus on the semantic aspect alon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 have made three practical suggestion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ith regard to translation: (1) the

www.kci.go.kr

semantic parallelism is to be highlighted; (2) the parallel line must be considered, and (3) the digital version should be used for dissemination.

Keywords

Hebrew poetry

parallelism

semantics

poetic line

dissemination of the digital version

- 투고일: 2018년 6월 25일
- 심사일: 2018년 7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7월 27일

www.kci.go.kr